

의안
번호

388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경이 의원 외 16인

나. 의안번호 : 제388호

다. 제출일자 : 2024. 11. 06.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현행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고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체험홈에 대한 운영 및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조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제명 개정

나. “장애인” 등 용어 정의 정비 (안 제2조제1호)

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규정 명시(안 제6조)

라. 현행 운영 상황에 맞지 않은 규정 수정(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홈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 2024. 11. 12 .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7.12.19.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반영하여 제명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 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안 제2조(정의), 정비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²⁾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정비하였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을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

1)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11.>

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4., 2015. 12. 29.>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6조(실태조사) 신설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 또는 서울시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제5조1)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을 위해 장애인 및 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31조2)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3)에서는 장애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있어, 필요시 국가 또는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19조(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19조4) 및 동법 제35조5)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립생활 체험 홈”은 성북구에서 1개소 운영중으로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및 지역거주 장애인이 일정기간 자립생활을 경험하며 자립생활 능력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전문적인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함

-
- 1)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2)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계획의 수립)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4)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성북구 장애인 현황

(2024. 10월 기준)

연번	장애유형	합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계	16,916	5,871(34%)	11,045(66%)
1	지체	7,123	1,215	5,908
2	시각	1,846	378	1,468
3	청각	2,674	439	2,235
4	언어	161	87	74
5	지적	1,174	1,174	0
6	뇌병변	1,663	880	783
7	자폐성	339	339	0
8	정신	605	590	15
9	신장	874	639	235
10	심장	33	21	12
11	호흡기	88	75	13
12	간	128	2	126
13	안면	18	6	12
14	장루, 요루	144	11	133
15	뇌전증	46	15	31

※ 관내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이 66%로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 중증장애인(심한장애)에 국한되기보다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이에 자립생활 지원 조례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조례대상 확대가 필요함.

붙임2 성북구 자립생활 체험홈 (1개소)

- 사업목적 : 단기 자립체험을 통해 장애인에게 맞는 개인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함.
- 운영기관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운영기간 : 2024. 1. ~ 2024. 12.
- 소 재 지 : 노원구 공릉동 707 공릉2단지아파트 202동 10층(39.6㎡)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 입주정원 : 2명(기본 6개월, 최대 12개월)
- 입주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 주요프로그램 : 자아인식, 일상생활관리, 지역주민과의 교류, 직업탐색 자립생활 코디네이터에 의한 전문적 사회응용훈련
- 사업예산 : 54,903천원(전액 구비)